

인류가 호수나 바다 근처에 살면서 물을 건널 때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통나무였다. 그 다음에는 둥근 나무토막을 묶어서 만든 뗏목을 사용했고, 그 후 커다란 나무의 가운데를 파내서 만든 통나무배가 등장하게 됐다.

영국의 존 맥그리그가 1865년 현재의 카누모양으로 만든 배가 시초가 되어 1924년 파리에서 열린 제8회 올림픽대회에 첫 참가했다. 그해 각국의 카누협회를 모아 국제적 기구인 국제카누연맹이 생겨났고, 본부를 독일에 두었다.

이 연맹은 카누경기 규약을 정해 조법의 향상에 힘썼고, 이때부터 세계적인 스포츠로서의 기초를 확립하게 됐다. 이후 제1회 유럽선수권대회가 1933년 프라하에서 열린 데 이어 1935년 2월에는 IOC총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참가했으며, 여자 종목은 1948년에 채택됐다.

한편 아시아의 카누는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1983년 9월 아시아카누연맹이 창설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3월 26일 대한카누연맹이 창설되어 그해 8월에 춘천에서 처음으로 강습회가 개최됐으며, 각 시도지부가 창설돼 오늘날 한국 카누의 초석이 됐다.

부산카누연맹에는 2012년 기준 중등부 4개 팀 10명, 고등부 2개 팀 11명, 대학부 1개 팀 6명, 일반부 1개 팀 5명 등 총 8개 팀 32명이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현직 회장

- 김명호**  
동산디앤씨주식회사
- 1996 부산시남구체육회 상임부회장
- 1997~1999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AIMP) 총동창회 회장
- 1999~2003 새마을운동중앙회 부산시남구지회 회장
- 2005~2006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지구 재무총장
- 2007~현재 동산디앤씨(주) 대표이사
- 2008~현재 사단법인 한민족한미음운동본부 사무총장

역대 회장

제1대	김지은	1984.01~1985.12
제2대	장영기	1986.01~1987.12
제3대	김재진	1988.03~1995.12
제4대	남중훈	1996.08~1998.10
제5대	김명호	1999.03~2000.10
제6대	백성수	2000.10~2003.02
제7대	김명호	2003.03~2009.07
제8대	김인옥	2009.07~2011.04
제9대	김명호	2011.04~현재

현직 회장 및 임원

연맹 직위	성명	소속
회장	김명호	동산 D.N.C 대표이사
부회장	문병섭	부산카누연맹 부회장
	하해동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강창환	건설업 대표
	정영균	건설업 대표
전무이사	유원대	부산강서구청 감독
총무이사	신봉규	부산시체육회 지도자
심판이사	한영호	성일중기 대표이사
훈련이사	유영성	다대중학교 교사
경기이사	최동호	부산체육고등학교 교사
시설이사	김웅학	해인수상레포츠 대표이사

연맹 직위	성명	소속
홍보이사	강연호	강사
이사	이정기	한국해양소년단 훈련교수
	유영성	다대중학교 교장
	최진관	부일외국어고등학교 교장
	정윤목	금양프린텍 대표
	이승철	주류유통업 이사
감사	박중호	부일전자디자인고등학교 교장

선수등록 현황

연도	계(팀/인원 수)	구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07	7/37	-	1/1	2/3	2/28	2/5
2008	6/19	-	1/4	1/3	2/7	2/5
2009	6/19	-	1/4	1/3	2/7	2/5
2010	9/38	-	4/13	2/10	2/9	1/6
2011	10/40	-	5/14	2/11	2/9	1/6
2012	8/32	-	4/10	2/11	1/6	1/5

전국체육대회 성적(최근 6년)

연도	종합순위(득점)	획득메달(금/은/동)	구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07	7(882)	0/2/4	11(351)	-	7(531)
2008	9(708)	2/1/0	13(0)	-	4(708)
2009	14(441)	1/0/1	11(97)	-	10(344)
2010	8(676)	1/2/1	11(114)	-	6(562)
2011	10(577)	2/0/0	10(101)	-	8(476)
2012	12(478)	0/2/0	12(0)	-	9(283)

